

희토류, 일본 수입가격 4-6배 폭등

네오뎴 80-90달러에 세륨 55달러 거래 ... 일본-미국 수입다변화 공조

일본의 희토류 가격이 중국의 수출 억제에 따라 1년 사이에 4-6배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토류는 친환경 자동차나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 등 첨단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로 일본의 자동차와 전자제품 생산기업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희토류의 일종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터용 자석에 사용되는 네오뎴은 일본 수입가격이 kg당 80-90달러로 2009년에 비해 4배로 뛰었다고 니혼게이지아신문이 10월28일 보도했다.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의 연마재나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에 사용되는 세륨도 kg당 55달러 안팎으로, 6배로 폭등했다.

희토류는 중국이 2010년 7월 희토류 수출량을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석의 내열성을 높여주는 디스프로슘은 요구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최근 거래가 중단된 상태이다.

중국 세관은 일본으로 수출되는 희토류 전량을 검사하고 있으며 네오뎴은 kg당 80달러 이상, 세륨은 45달러 이상으로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통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1년에도 희토류 수출량을 30% 감축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은 미국과 공조해 다각적인 자원외교를 벌임으로써 중국의존에 탈피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견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01>